

# 농협 광양시지부 10억원 데일 판

## 신용대출 '광양훼리' 운항중단 피해 고스란히...시민들 비난 고조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가 광양~일본간을 운항하는 '광양훼리'에 신용만으로 10억원을 대출해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양훼리는 지난 2010년 5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운항을 시작해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1월 운항이 중지돼 활로모색 중에 있다.

4일 농협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2011년 5월 광양훼리에 10억을 신용대출했으나, 경영악화로 운항이 정지되자 기관의 보조금까지 끊기면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민들은 광양시와 광양훼리가 활로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52억원에 달한 부실채권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협, 유류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형편이라며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소중할 현재 낭비가 예상된 가운데 광양시의회나 시민단체 등이 버리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없을 경우 정책실패에 대한 시장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농협 광양시지부는 광양훼리의 태생 초기 전남도·군부두공단(현 황만공사)·광양만경제청, 광양시 등 4차 협약사와 시 관계자의 구두 협조의뢰가 있어 시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섣부른 신용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전남도 등 기관들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다고 판단해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 통상 법인들의 대출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회사대표의 신용과 사업성 등을 따져 전기관을 통해 분석한 뒤 대출이 이뤄진다.

농협 관계자는 "미래지향적 사업인데 일본 대지진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초래돼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시민 이모(50·종마동)씨는 "일반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으려면 엄청난 거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하는데 안전장

치가이 10억원을 신용만으로 대출해줬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 광양시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시와 관계기관의 향후 방침을 지켜본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면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광양훼리는 광양항 활성화와 호남의 농·특산품의 신속한 수출을 위해 전남도, 광양시 등이 지난 2011년 4월 4년간 60억원을 손실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25억원을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여수 문수동에 '몬드리안 예술의 거리'

정보고 외벽 200m

몬드리안 작품 완성

여수시 문수동에 '몬드리안 예술의 거리'가 탄생했다.

여수정보과학고 산업디자인과 벽화 봉사동아리 '담·싸랑' 회원 50여명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주간에 걸쳐 문수동에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색채개선 사업'에 동참해 정보고 외벽 200여m 구간에 추상화의 거장 네덜란드 출신 피에트 몬드리안(1872~1944)의 작품을 완성했다.

여수정보고 이선규 지도교사는 "지난 20여년간 쌓였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회색빛 벽을 대했을 때는 흥물스러움과 막막함을 느꼈다"며 "벽의 구조와 가장 적합한 몬드리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를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에게 명화(名畵)와 공간이 어우러진 명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득량만 간척지 쌀 특급 브랜드 육성

보성군, 100ha 생산단지 조성·재배기술 교육

보성군이 득량만 간척지 쌀을 전국 최고의 프리미엄급 브랜드 쌀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간척지 쌀의 옛 명성을 뛰어넘어 전국 최고급 쌀 생산단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간척지 100ha에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유지했다.

센터는 품종 선택에서부터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한 핵심 재배 기술을 보급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특급 브랜드 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득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득량만 간척지 쌀 전국

최고급 프리미엄급 브랜드화를 위한 최고급 쌀 생산 만들기 결의대회와 최고급 쌀 생산 핵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년간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추진하면서 삼급 수준 이상의 재배 기술이 확보됐다"며 "회원들의 각오가 대단해 앞으로 기대 이상의 특급 쌀이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특급 고품질쌀 특성화 단지에서 생산된 '남촌품미'는 지난 2010년 고품질쌀 생산 우수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박람회 빛날 거북선 꽃탑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을 38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주삼동 주동사 거리에 거북선 꽃탑이 조성됐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박람회 기간 중에 시가지 장식용 꽃묘 23종 130만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제공

# 여수 여서·문수지구 순환구간 일방통행

박람회 기간 교통 소통 대책...오늘부터 시행

여수박람회 기간(5월 12~8월 12일) 동안 시내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5일부터 여서·문수지구 일방통행 시행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여수시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및 차선 도색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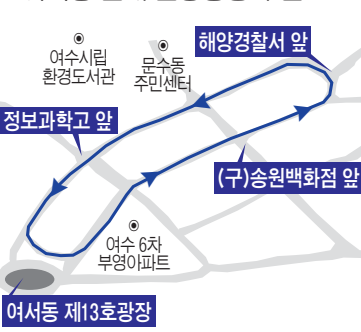
일방통행 시행구간은 여서로터리를 기점으로 → 부영6차사거리 → 여서동사거리 → 여서농협앞 → 해양경찰서앞 → 문수동주민센터앞 사거리 → 정보과학고앞사거리 → 여서로터리까지 순환형 노선체계로 운행된다.

앞서 시는 여서·문수지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일방통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수경찰서의 교통안전시 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또한, 지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일방통행 시행 예고를 홍보해 왔다.

여수시 이경우 교통행정과장은 "여서 로터리에서 해양경찰서 방향에 대해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 현행 2차로를 3차로로 늘려 1개 차로에 대해서는 격주간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교통 정체현상을 최소화해 관

여서동 일대 일방통행 구간



광객들이 여서·문수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전 북

# 전주시 문화재 보수·정비

14억 들여 남고산성 서문루·전주향교 월대 복원



# 응포 곰개나루 캠핑장 내달 개장

전기시설 갖춘 오토 6면, 일반 39면 조성

익산시 응포관광지 곰개나루 지구 캠핑장(사진)이 오는 5월 개장한다.

익산시는 곰개나루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6000만원을 투자해 캠핑장을 대 단장했다. 오토캠핑장 6면과 일반 캠핑장 39면, 개수대 2개소와 전에 없던 배전시설까지 갖춰 5월 문을 열고 정식 캠핑장으로 거듭난다.

응포 곰개나루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자는 의견은 한 시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익산시와 희망연대는 지난 2010년 사회 곳곳의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익산사회 참안대회'를 열고 '내

가 꿈꾸는 익산'이란 주제 아래 공모전을 벌였다. 이때 조원희씨가 '곰개나루 오토 캠핑장'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시는 본격적인 캠핑장 개장에 앞서 4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뒤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 예약을 위한 전용 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캠핑장 이용료는 오토 캠핑장의 경우 성수기(7~8월)에 1만5000원, 비수기 주말과 공휴일은 1만5000원, 평일 1만원이다. 일반 캠핑장은 성수기(7~8월)에 1만원, 비수기 주말과 공휴일은 1만원, 평일은 5000원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주시는 남고산성(사적 제294호)·경기전(사적 제339호)·전주향교(사적 제379호)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14억 7700만원을 확보했다. 남고산성의 경우 '전주읍지'에 기록돼 있는 기록과 그림을 참조해서

문루 복원에 나선다. 서문루가 복원되면 정동주 우국시 및 남고산성 사적비와 더불어 남고산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전은 오는 6월부터 유료화에 맞춰 노후된 동문 화강실을 개축한다.

또 전주향교는 대성전의 월대 해체·복원공사를 시행한다. 대성전의

월대는 세월의 흐름의 따라 간격이 벌어진 곳이 있어 전면 해체해 고층에 따라 원형대로 복원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부가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향교



경기전



남고산성

# 남원 산수유 꽃 축제 놀러 오세요

7~8일 옹궁면 일대에서 각종 체험행사



남원시 주최면 옹궁면에서 산수유 축제 7~8일 이틀간 열린다.

남원시 주최면 옹궁면에서 산수유 축제 7~8일 이틀간 열린다. 지리산 둘레권역 산수유꽃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옹궁 산수유축제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주천면 농약단의 풍악놀이, 산수유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산수유차 시음회, 도토리묵 만들기 체험 등의 행사가 열린다.

지리산 영재봉(해발 1050m) 기슭에 자리한 옹궁마을은 마을 전체를 뒤덮는 노란 산수유꽃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는 300~400년 된 산수유 고목들 비롯해 수천 그루의 산수유 꽃이 마을 전담과 돌담길 사이에 피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여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진기자 bs8787@

# 내장산 입구 'LED 갈대 가로등' 설치

정읍시 내장산 상가지구 입구에 설치된 경관 가로등이 새로운 야간 볼거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는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LED 갈대 가로등'을 설치했다. 상가지구 입구 봉룡교 중앙 분리대와 인도를 이용해 만든 경관가로등으로 '갈대 가로등'으로 불리며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몰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점등되

는 갈대 가로등은 특히 시간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되며, 야간에 내장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모두 39억원을 들여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내장산 상가지구 간판 정비, 하천정비, 도로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단 신

중·군민시 수출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전북도는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리는 수출박람회에 참가할 희망업체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쿤밍 수출박람회는 동남아 10개국 변경무역의 주요 교역지와 전 세계 80여개 국가의 유력 바이어들이 참여한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장에는 전북도관을 설치한 후 10여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6월6~10일 열리는 박람회 참여기업에는 부스 사용료 전액과 통역비용 50%를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교향악단 내일 정기연주회

군산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6일 오후 7시 30분에 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시립 교향악단은 엘가의 '개신행진곡'과 마르티누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댄스' 등을 선 보인다.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선

보이기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이정, 첼리스트 이숙경, 피아니스트 오윤주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 연주곡은 오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에 초청돼 선보일 곡이기도 하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정주 고가교 15t 이상 차량 통제

정읍시는 5월 1일부터 정주 고가교를 통행하는 15t 이상 화물차량을 전면통제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지난 2월에 정주 고가교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아 교량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통제를 실시한다"고 4

일 밝혔다. 안전진단 결과 지난 1982년 준공된 정주 고가교는 15t 덤프차량 1대 통행시 승용차 1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15t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금지(제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순창군은 지역발전 선도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2012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을 접수받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7명 등 28명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도에서 일괄 선발한다. 연수

국가로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이다. 연수기간은 초·중학생은 8주, 고교생은 12주, 대학생은 24~48주 이내로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를 통해 연수받게 된다. 문의(063-650-1237)

전북취재본부=이희희기자 dhlee@